

독립유공자 9명 포상...순국선열 희생·독립정신 기려

전남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대한민국 빛날~’ 주제
전국 첫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서훈 신청’ 사업 추진

전남도와 광복회 전남도지부(지부장 송인정)는 17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렸다.

기념식은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남용 전남서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빛날 이 나와 나로다’라는 주제로 국민의례,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기념사, 기념공연,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전남 출신 9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로 포상됐다. 포

상은 애국장 1명, 애족장 2명, 대통령표창 6명이며, 이중 6명(소진호·정인수·서봉규·신태금·최판수·최찬오)은 전남도가 전국 광역 시·도 최초로 추진한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사업을 통해 발굴한 인물이다.

이날 고 신태금 님의 외손녀 최유임 님에게 독립유공자 포상이 전수됐다. 신태금 님은 1932년 6월 영암 덕진면에서 청년 70여명과 함께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에 맞선 소작쟁의를 주도하다 체포·투옥되는 등 항일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국가보훈부 중앙기념식에서 1명에게

포상이 전수됐으며, 나머지 4명은 유족 주소자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서 전수식이 진행됐다.

유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3명은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사업 등을 통해 후손이 확인되는 대로 전수될 예정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기념사에서 “행동이 없는 추모는 기억을 가난하게 만든다”며 “선열의 복습으로 증명한 그 정신을 더 깊이 새기고 전남도가 더 굳건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억6900만원을 투입해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서훈신청’ 사업을 단계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미서훈 독립운동가 2500여명을 발굴하고, 이중 1100여명에 대한 서훈을 신청했으며, 현재까지 38명이 서훈을 확정받은 성과를 거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7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제86주년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가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함평군, 제22기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 출범

통일 공감대 확산·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 다짐

함평군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함평군협의회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평화·통일 기반 조성 활동에 나선다.

17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가 최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1981년 설립 이후 지역 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통일 의지 결집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출범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자문위원 50여명이 참석해 새롭게 구성된 제22기 함평군협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역할과 비전을 공유했다.

출범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정영오 협의회장의 개회사, 이상의 함평군수 격려사, 제22기 협의회 구성 현황 보고, 위촉장 전수 및 임명장 수여, 자문위원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2부 정기회의에서는 제22기 민주평통 활동 방향 및 자문위원 안내 영상 시청, 협의회 임원 인준 등이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함평군협의회가 최근 함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영오 민주평통 함평군협의회장은 “평화통일에 대한 군민의 뜻을 모으는 민주평통의 지역 대표로서 자문위원분들과 함께 통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의 군수는 “제22기 민주평통 함평

군협의회 공식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평화와 통일은 우리 모두의 염원인 만큼, 지역 협의회가 중심이 돼 군민과 함께 소통하며 통일의 밑거름을 다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김성의 광주전남언론포럼이사장, 언론중재위원 선임

광주중재부...임기 3년

김성의 (사)광주전남언론포럼이사장(전 남도일보 대표이사·부회장·사진)이 17일 한국언론중재위원회 광주중재부 선임 중재위원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며, 임명장 수여식은 다음 달 1일 한국언론중재위원회 서울중재부에서 열린다.

전남 나주 출신인 김 중재위원은 1988년 무등일보 기자로 언론인 활동을 시작



했으며, 1997년 남도일보 전신인 광주타임스 창간 멤버로 참여해 편집국장,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사장, 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위원은 “공정한 중재자로서 피해와 언론사의 균형 잡힌 이해를 도모하겠다”며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환경공단은 최근 ‘어린이 환경미술전시회’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상무지구 파란놀이터공원에서 개최했다.

광주환경공단, ‘어린이 환경미술전시회’ 눈길

광주환경공단은 광주환경공단이 주최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아트센터가 주관한 ‘어린이 환경미술전시회’를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상무지구 파란놀이터공원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함께 그린 우리의 지구, 함께 만들 Green 지구’라는 슬로건 아래 어린이의 시각에서 표현된 환경보전 메시지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시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제작한 멸종위기동물·환경지킴이 작품 200점과 자유작품 250점 등 총 450여점이 전시돼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5일에는 환경작가 이경래와의 만남 프로그램이 진행돼 어린이들이 ‘달콤함’에 갇힌 멸종위기동물 이야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환경공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들의 환경 인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시민들에게는 미래세대가 전하는 진정성 있는 환경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그린 지구의 의미를 이어가겠다”며 환경교육 프로그램 확대 의지를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최필승 미래로 대표, ‘이달의 임업인’ 선정

복령버섯 재배...삼파·비누·차 등 가공판매로 소득 창출

전남도는 11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화순 동북면에서 12년간 복령버섯을 재배한 최필승 농업회사법인 미래로 대표(사진)를 선정했다.

최필승 대표는 부친인 최남용 제8~9대(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가문 산림을 이어받아 2012년 임업 후계자로 등록하고, 2013년부터 복령버섯 재배를 본격화해 대를 이어 전문임업에 종사하는 선도 임업인이다.

복령버섯 재배에 뛰어들어 이후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에서 버섯학과를 졸업하

고 버섯종균 기술사를 취득해 전문적 지식도 쌓았다. 특히 지상 재배 방식을 도입해 복령의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자체 종균 개발에도 꾸준히 노력했다.

화순 동북면의 소나무림에서 자란 양질의 복령을 활용해,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복령을 삼파, 선식, 비누, 차 등 가공제품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이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판매해 연 매출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복령 인지도 제고와 임산물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버섯의 일종이다. 형태는 일정하지 않지만 10~30cm의 타원형이나 공 모양으로 다양하며 표면은 흑갈색이나 적갈색이다. ‘동의보감’에 진정, 이뇨, 강장 등 효능이 기록돼 한약재로 널리 쓰이며, 위장병, 당뇨 등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최근에는 복령 추출물이 피로회복, 피부미용, 황산화 효과 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최 대표는 “복령은 우리 산의 숨은 보석과 같은 존재”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복령 산업이 지역의 새 성장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대병원 개발 플랫폼, 뇌졸중 전문 학술지 게재

최강호 신경과 교수·정지수 전공의 항혈소판제 유지요법 논문

전남대학교병원은 자체 구축한 차세대 통합데이터 플랫폼 ‘rSMART’를 활용한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뇌졸중 전문 학술지 ‘Journal of Stroke(뇌졸중 저널·Impact Factor 8.6, JCR 상위 4%)’에 게재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남대학교병원 신경과 최강호 교수(교신저자·사진)와 정지수 전공의(1저자)와 주도한 것으로 ‘비식인성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유지요법으로서 클로피도그렐의 우수성’이라는 제목의 연구다.

해당 연구는 지난 2023년 전남대병원의 연구 공모제로 선정됐으며, 2011~2022년까지 전남대병원 뇌졸중센터에 입원한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중 환자의 항혈소판제 유지요법 선택에 있어 중요한 임상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Health 사업단의 지원 아래 전남대병원이 자체 개발한 의료 통합데이터 플랫폼 rSMART를 활용해 이뤄졌다.

최강호 교수는 “실제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유지요법 선택에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 기반의 판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연구진은 전남대병원의 rSMART 플랫폼을 활용해 전자 의무기록과 뇌졸중 등록 데이터를 통합 분석했다. 이번 결과



전남도의회는 17일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남도의회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남도의회는 17일 전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착한 선결제 문화 확산, 지역사회 상생품 사용 장려 등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따뜻한 소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은 김태균 의장 등 도의원

전남도청 사거리 8개 방향에서 플래카드와 어깨띠, 피켓을 이용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태균 의장은 현장에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소비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며 “전남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점체민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농기원, 늘봄학교 최종보고회 개최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형란)은 ‘늘봄학교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초·중·고생 맞춤형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 늘봄학교 정책에 맞춰 기후변화, 생태환경,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 다양한 교과 연계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단순 체험을 넘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내년부터는 2개소에서 ‘늘봄학교 농업·농촌 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해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관 전남도농업기술원 자연경영과장은 “학교와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